

“하모니로 세상과 소통하는 첫 무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햇빛’ 25일 창단 연주회 도교육청 오라청사 합주실에서 막바지 연습 한창 현재 단원은 6명… “장애인 편견 없애는 계기 되길”

“클라리넷, 바이올린. 조금 더 소리가 나와도 돼요. 오케이, 준비 됐지? 이제 갑니다!”

17일 찾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라청사 내 장애인오케스트라 합주실로 들어서자 ‘붉은 노을’과 ‘아름다운 강산’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햇빛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오는 25일 ‘첫 울림, 가슴에 들어온 하모니’를 주제로 열리는 창단 연주회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 모습이였다.

단원들 앞에 선 이정석 지휘자는 단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악기 소리를 체크했다. 연주 중간중간 “웃으면서~”라며 지도하는 지휘자의 안내에, 연주에 몰두하느라 긴장한 단원들의 표정이 금세 화사해졌다.

합주를 마친 단원들은 지휘자의 조언에 “포르테는 분홍색! 연두색은 메조포르테!”라고 외치며 다시 한번 연주에 몰입했다.

올해 1월 창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햇빛 오케스트라’는 사랑을 바탕으로 마음(heart)을 울리는(beat) 따뜻한 선율을 의미한다. 고은강(23·바이올린), 김도유(26·바이올린), 오성준(24·플루트), 문석민(24·클라리넷), 정운태(21·타악

기), 현석환(28·피아노)씨 등 발달장애 단원 총 6명으로 구성됐다.

25일 예정된 창단 연주회를 마친 뒤 단원들은 각자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 이해 교육 강사로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 장애 이해 교육을 직접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정석 지휘자는 “소리의 울림에 개개인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데,

단원들의 소리가 매우 특별하다”며 “구슬 하나하나를 꿰어 맞춘다고 생각하며 소리의 합과 하모니를 구성하는 데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악기를 담당하는 정운태씨는 “합이 맞을 때마다 오케스트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며 짜릿함을 느낀다”며 “(오케스트라 단원) 총 32명(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던데, 지금 6명끼리 하모니를 맞추고 이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문석 씨는 “오케스트라의 매력은 모여서 합을 맞춘다는 점”이라며 “처음 왔을 때는 합이 맞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3개월 간)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모든 단원이 유렵은 한 번씩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애인오케스트라 햇빛의 창단연주회는 25일 오후 7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다. 공연장 입장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라청사 내 장애인오케스트라 합주실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17일 제주시 용두암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관광시장 5월 황금연휴 ‘들썩’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연휴에 국내여행 기대 ↑ 중 노동절·日 골든위크 겨냥 국제선 운항 확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 5월 초 황금연휴에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가 맞물리면서 제주 관광업계가 관광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제주관광업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말부터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어린이날 연휴(5월 4일~6일)에 중국 노동절 연휴(5월 1~5일)와 일본 골든위크(4월 27일~5월 6일)가 겹치면서 다음달 초 많은 내국인·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 노동절을 기점으로 제주와 중국을 잇는 국제노선이 대폭 확대되면서 업계는 대대적인 유커 귀환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상하이 노선이 늘어나 다음달 1일부터 주 58회 운항을 준비하고 있고, 제주-베이징 노선이 오는 24일부터 주 17회 운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한달간 제주와 중화권 대도시를 오가는 국제선은 베이징, 상하이, 난징, 항저우, 시안, 심천, 정저우, 푸저우, 홍콩, 마카오 등 노선으로 주 126회 운항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형 국제크루즈도 잇따라 제주를 찾는다. 다음달 1일 코스타세레나호(승객정원 5260명)와 아도라 매직 시티호(승객정원 5246명)가, 6일에는 아도라 매직 시티호, 블루드림 펠로디호(승객정원 1582명)가 기항하는 등 5월 1~6일 사이 국

제 크루즈선 7척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

도내 관광업계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분위기다.

롯데관광개발에 따르면 다음달 1~5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 객실이 하루 평균 1370실 예약돼 85%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5월 초 황금연휴 기간 하루 최대 1500실에 숙박하는 객실 예약이 완료됐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말에 이르러 하루 평균 객실 예약률이 90%를 웃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특급호텔 상황도 비슷하다. 가족 단위 내국인 관광객 수요도 물리면서 예약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신화월드 관계자는 “가족 단위 소규모 관광객 수요가 많은 편이며 이 기간 객실 예약률이 80%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노동절을 기점으로 북돋 터지듯 관광객이 몰려와 2016년과 같은 제 2의 유키붐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관광협회의 제주관광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206만7351명으로, 이 중 내국인 관광객은 185만7403명, 외국인 관광객은 20만9948명이다.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은 17만6064명으로 전체의 83%에 달했다.

박소영기자

독자제보 750-2232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공무집행방해 6명 중 1명꼴 구속됐다

제주경찰, 지난해 224명 검거… 구속률 15.6%

제주지역에서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률이 2년 사이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공무집행사범은 726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6명, 2022년 266명, 2023년 224

명으로 해마다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구속률은 크게 높아졌다. 2021년 6.3%에 머물던 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률은 2022년 12.4%, 2023년 15.6%로 2년 사이 9.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제주시 모 편의점 앞에서 흥기를 들고 다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흥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구속됐으며, 올해 2월 23일 112에 살인사건이 났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흥기로 위협한 피의자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공무집행방해사범은 대다수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 비율은 2020년 82.3%, 2021년 78.3%, 2022년 85.3%로 집계됐다.

이상민기자

제주감귤농협 창립64주년

한라일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감귤농업인과 함께한 60여년! 새로운 100년 을 준비하는 희망찬 제주감귤농협!

대한민국 인증 브랜드 “불로초” 감귤

“2024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14년 연속 대상으로 퍼스트클래스 달성”

조합장 송창구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www.citrus-jeju.com 서귀포시 신중로 28
Tel. 064-739-5401 Fax. 064-739-5406